

간호대상자의 문화배경별 자가간호(self-care) 유형의 비교연구

—산후관리 중심으로—

전 정 자 · 유 은 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I. 서 론

간호란 간호대상자, 즉 인간의 실제적이고 잠정적인 건강문제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며, 정신적, 사회적, 영적,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 인간은 다양한 함의(含意)를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 속에 존재한다.

문화란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화의 뜻과 사회학,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란 교양, 세련, 발전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고 사회학적 의미의 문화란 사회 성장으로서의 개인들에 의하여 학습되어진 총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며 사고, 행위 및 감정양식이다. 인류학자인 Tylor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때 문화란 인간이 창조한 모든 종류의 지식, 예술, 음악, 기술, 그리고 정치적 가족적 조직체등을 모두 포함하고 또한 신념 가치까지도 의미한다. 이외에도 문화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펠릭스 키싱은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된 행위의 총체”로, 구드이나프(Goodenough)는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 또는 개념체계”로 간주하였고 쿠루버와 크락혼(Kroeber, A.L. & Kluckhohn)은 “문화란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

라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로부터 끌어 낸 추상”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자마다 문화의 정의가 다르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이 문화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학습행동(learned behavior),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 초유기체(super organic), 생활설계(design for life) 등으로 문화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고유한 것으로 사회성원에 의하여 학습을 통하여 공유되고 전승되며 축적된 경험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¹⁾

본 연구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사회성장으로서의 개인들에 의하여 사회화를 통하여 학습되어진 총체이며 이는 하나의 생활에 대한 풍습이고 생활양식이며 사고 행위 및 감정양식이고 신념, 가치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인간사회는 문화없이 존재할 수 없고 문화는 또한 사회를 떠나서 고려될 수 없다. 이에 간호학이란 여러 요소로 구성된 그리고 사회속에 문화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이들이 속하여 있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적절한 간호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선조에 의하여 전수되고 공유된 축적된 경험의 총체 즉 고유한 전통문화가 있고 또한 서구문명이 도입되면서 새로이 학습되고 전수되고 공유된 새로운 문화가 있다. 우리의 간호대상자는 바로 이런 기존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혼합된 문화속에서 현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완전히 서구 문화에서 시작되고 성장된 서양의학 및 서양식 간호학

1) 김영기의(1984), 사회학(서울: 예문출판사), 91~93면.

*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이루어 졌음.

중심으로 우리의 대상자를 접근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관리의 인식, 가치관 및 행동술 결정²⁾하므로 현존하는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려하여야 만이 우리에게 맞는 간호개념, 간호계획, 간호수행이 이루어져서 간호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들 문화와 간호에 대한 연구³⁻¹⁰⁾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미국에서는 문화인류학이론(anthropologic theory), 민족과학이론(ethnoscience theory),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등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Leininger는 횡문화와 간호이론(Transcultural Nursing Theory)을 확립시켰다. 이 이론의 요점은 자기 다른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건강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한 인간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¹¹⁾와 횡문화 간호이론에 근거한 방¹²⁾의 연구에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정상 과정이면서 가장 문화의 영향에 민감한 모성간호의 산후관리중심으로 현 문화권에 속하여 있는 대상자의 산후관리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모성간호중재의 문화적인 접근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986년 7월 1일~8월 30일 사이에 서울 경기, 수원, 안양,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자의 면담 및 설문지배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20명만을 본 연구의 대상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의 비율 분포

구 분		인 수	비 율
연 령	18~29	112	21.5
	30~39	158	30.4
	40~49	144	27.7
	50~59	65	12.5
	60이상	41	7.9
계		520	100.0
지 역 (현거주)	서울, 경기	60	11.6
	안양, 수원, 인천	30	5.8
	강원	53	10.2
	충청남북도	53	10.2
	경상남북도, 대구	104	20.1
	부산	42	8.1
	전라남북도	141	27.1
	제주도	35	6.8
계		518	100.0
한자녀수	1명	79	16.0
	2명	159	32.1
	3명	114	23.0
	4명이상	143	28.9
	계	495	100.0
종 교	기독교	142	27.6
	카톨릭	67	13.0
	불교	162	31.5
	유교	7	1.4
	무종교	136	26.5
	계	514	100.0

2) 방메론,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문문화가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3면.

3) Patricia Ann Demsey, etc. (1983), "The childbearing Haitian Reguee Cultural applications to Clinical Nursing," *Public Health Report*, Vol 98, No. 3, pp.261~269.

4) Lois Wadd, (1983), "Vietamense Postpartum Practices: Implications for Nursing in the Hospital Setting," *JOGN Nursing*, July/August, pp.252~257.

5) Vina Major, (1984)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Nursing Times*, June 13, pp.57~58.

6) Stuart C. Tentoni, (1980), "Culturaly Induced Postpartum," *JOGN Nursing*, July/Aug., pp.246~250.

7) Hyo Jin Chung, (1977), "Understanding the Oriental Maternity patient,"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12, No. 1, March pp.67~83.

8) Sheila Kitzinger, (1977), "Challenge in antenatal education: Immigrant Women in Childbirth-an anthropologist's View," *Nursing Mirror*, June 23, pp.19~22.

9) Rabbi Isaiah Rackovsky, (1980), "Nurses, Nursing & Culture," *Supervisor Nurse*, July, pp.20~22.

10) Marie Scott Brown, (1976), "A Cross-Cultural Look at Pregnancy, Labor and Delivery," *JOGN Nursing*, Sep./Oct., pp.35~38.

학 력	국교졸	88	17.6
	중졸	100	26.0
	고졸	215	43.1
	대졸이상	70	14.0
	무학	26	5.2
계		499	100.0

	친정어머니	209	41.6
	시어머니	190	37.8
	이웃·친지	22	4.4
	친척	24	4.8
	파출부·가정부	20	4.0
계		502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1			
	간호원	7	1.4
	의사	31	6.0
	백과사전 육아전서	119	23.1
	매스컴	55	10.7
	임신·출산에 관한 전문서적	134	26.6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170	32.9
계		516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출처 2			
	친정어머니	197	43.4
	시어머니	59	13.0
	친구	43	9.5
	이웃·친지	155	34.1
계		454	100.0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의 만족정도			
	매우 만족한다	10	1.9
	만족한다	166	31.9
	그저 그렇다	255	49.0
	부족하다	89	17.1
계		520	100.0

분만개조자			
	친정어머니	56	11.2
	시어머니	84	16.2
	남편	10	2.0
	조산원	69	13.7
	의사	255	50.8
	친척	11	2.2
	이웃·친지	17	3.4
계		572	100.0

산후조리시 도와준 사람			
	남편	37	7.4

자료 삼았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로 일반적 사항 10문항, 산후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행동, 피하여야 할 음식, 행동 및 이유를 묻는 주관식 6문항, 유즙분비 증감법을 묻는 주관식 3문항, 기타 산후관리 지식 및 관념을 묻는 주관식 6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로 전산처리하였고 백분율과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과 같이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 현 거주지역 자녀수, 종교, 학력, 산후관리에 관한 정보출처 1, 2, 정보입수만족도, 분만개조자, 산후조리시 협조자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30세에서 39세군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고 30세에서 49세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현 거주지역은 전라도, 경상도가 각각 27.1%, 20.1%로 가장 많았으며 현 자녀수는 2명이 32.1%로 가장 많고 종교는 카톨릭과 기독교에 40.6%로, 학력은 고졸 43.1%,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출처로는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32.9%, 친정어머니로부터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분만개조자는 의사가 50.8%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시 도와 준 사람은 친정어머니 41.6%, 시어머니 37.8%로 양가의 어머니가 주류를 이룬다.

2. 산후 금할 음식

1) 금할 음식과 이유분포
산후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금할 음식을 4가지 나열

종류	이름	산후 건강을 위한 이유,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비율(%)		이유		비율		비율		비율	
		이유	비율	이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소고기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2	돼지고기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3	닭고기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4	계란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5	생선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6	유제품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7	과일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8	채소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9	곡물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기타	10	37.0	10	37.0	10	37.0	10	37.0	10	37.0

유식	산후 건강을 위한 이유,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비율(%)										
	이유	비율	이유	비율	이유	비율	이유	비율	이유	비율	
1	소고기	109	12.3	71	8.0	51	5.8	241	27.2	43	5.0
2	돼지고기	50	5.7	38	4.3	37	4.2	125	14.2	24	2.8
3	닭고기	10	1.1	13	1.5	10	1.1	33	3.7	3	0.4
4	계란	5	0.6	2	0.2	2	0.2	9	1.0	1	0.1
5	생선	85	9.6	68	7.5	55	6.2	206	23.5	42	4.9
6	유제품	8	0.9	5	0.7	8	0.9	19	2.2	3	0.4
7	과일	3	0.3					3	0.3	2	0.2
8	채소	7	0.8	6	0.7	4	0.5	17	1.9	5	0.6
9	곡물	3	0.3	1	0.1	2	0.2	3	0.4	1	0.1
10	기타	4	0.5	7	0.8	3	0.3	14	1.6	1	0.1

하게 하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총 49가지가 나타났으나 3인이상 공통된 음식 30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2와 같이 이유를 달지 않은 음식은 missing 처리를 하여 비율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각각의 비율은 520명이 5개씩 대답하기로 되어 있어 총계는 응답자수가 아닌 응답자의 5배수에 해당되어 총 489사례에 대한 비율이다. 30가지 중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245명(27.4%), 딱딱한 음식 210명(27.2%), 찬 음식 129명(13.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맵고 짠 음식이 도유에의 영향, 산모소화장애, 산모에게 자극을 주므로 순으로 딱딱한 음식은 모체의 치아보호, 소화장애 순으로, 찬 음식은 모체치아보호, 흡수부전으로 인한 산모 신체 복구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 산모건강을 위하여 금할 음식은 도유, 치아, 산모의 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들고 있다.

2) 금할 음식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분포 표 2와 같이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금할 음식으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딱딱한 음식 찬 음식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과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	총계	1,234,567,890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0
1	일반회계	1,10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0
2	특별회계	134,567,890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0
3	기타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국고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지방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민간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금융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채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부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순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순부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7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과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	총계	1,234,567,890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	1,234,567,890
1	일반회계	1,10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0
2	특별회계	134,567,890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	134,567,890
3	기타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국고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지방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민간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금융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채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채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부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순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순부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7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순자산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5	순부채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단위) 사람, 포도(이하)를 제외한 단위, 가리(이하)를 빼고, 하위(이하)를 빼고

Table with columns: No., Sex, Age Group,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성별', '연령', '학력', '직업'.

Table with columns: No., Sex, Age Group,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Rows include categories like '성별', '연령', '학력', '직업'.

3. 산후 금할 행동

1) 금할 행동과 이유분포

행동 4가지를 나열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총 32가지 중 3인이상 공동된 행동 20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3과 같이 금할 행동은 과다 활동 224명(28.5%), 무거운 것 들기 147명(24.3%), 찬 바람 씌기, 찬물에 손 넣고 찬 곳에 봄 기대기 136명(18.8%), 조기 성생

표 7-1. 유문 분야의 안전을 위한 민원, 분기별 민원 발생, 특이사항 및 민원 처리

Table with 15 columns: 연월, 유문 분야, 민원 발생, 민원 처리, 민원 발생률,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민원 발생률 대비 민원 처리률. Rows include 1st-6th quarters and annual totals.

활 46명(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보면 과다활동은 산모건강에 안 좋고 허약해 있기 때문에, 거거운 것 들기는 밀이 빠지고 산모건강에 안 좋고 후에 몸이 쭈시고 아프므로, 찬 바람쐬기, 찬 물에 손 넣고 찬 곳에 몸대기는 몸이 붓고 시리고 아프므로, 조기성 생활은 산모건강에 안 좋으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산 후 금할 행동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산모건강에 안 좋고 허약해 있으며 밀이 빠질 위험이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2) 금할 행동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분포
표 3과 같이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금할 행동으로 과다활동 무거운 것 들기, 찬 바람 쐬기, 찬 물에 손 넣기, 찬 곳에 몸기대기 조기 생활순으로 나타났다.

4. 산후 권장하여야 할 음식

1) 권장하여야 할 음식과 이유분포

음식 4가지를 나열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총 44가지 중 3인이상 공통된 음식 25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4와 같이 권장하여야 할 음식은 미역국 178명 23.6%), 육류 98명(9.1%), 곰국 95명(11.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미역국은 나쁜 피 제거 혈액순환, 산모의 건강회복추진을 가져오므로 육류와 곰국은 산모건강회복추진, 영양이 풍부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 권장하여야 할 음식들의 전반적인 이유는 산모의 건강회복추진, 영양공급, 모유증진 및 모 유 질 향상, 산모의 나쁜 피 제거 순으로 나타났다.

2) 권장하여야 할 음식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분포

표 4와 같이 연령, 거주지역, 종교, 학력에 별차이 없이 권장할 음식으로는 미역국, 육류, 곰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경상도에서 호박과 꿀을 넣어 증탕한 것 보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5. 산후 권장하여야 할 행동

1) 권장하여야 할 행동과 이유분포

권장하여야 할 행동 5가지를 나열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총 41가지 중 3인이상 공통된 행동 21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5와 같이 권장하여야 할 행동은 적당한 집안 일과 운동 131명(32.3%) 약간의 운동 또는 일, 65명(10.4%) 충분한 휴식 55명(7.3%) 산후체조 53명(13.5%) 순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적당한 집안

(표 8) 유급 본인 급여음식의 업종,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비율 분포

구분	연령	업종		거주지역		종교		학력	
		제조업	서비스업	도시	농촌	불교	기타	초·중·고	대·석·박
연령									
18~29세	11	1.6	30.4	5.6	0.9	20.3	0.2	3.0	0.5
30~39세	25	3.7	54.8	12.1	22.3	3.1	0.2	1.0	0.2
40~49세	38	5.6	42.6	14.2	1.0	1.5	5.0	2.0	0.3
50~59세	19	2.9	27.4	6.0	0.9	5.0	1.0	0.2	
60세이상	11	1.6	12.1	1.8	3.0	0.5		1.0	0.2
계	104	15.5	165.2	24.6	41.6	61.9	1.8	12.7	1.0
거주지역									
서울, 경기	9	1.3	10.1	1.5		4.0	6.1	0.2	1.0
안양, 수원, 인천	6	0.9	13.1	1.9		1.0	2.0	0.3	
충청도	8	1.2	20.3	3.0	1.0	1.5	2.0	0.3	
경상도	28	4.1	29.4	3.0	0.5	1.9		2.0	0.1
전라도	25	3.7	78.1	11.6	24.3	3.1	2.0		0.3
제주도	3	0.5	2.0	3.0	6.0	0.9	1.0	1.0	0.2
강원도	10	1.5	6.0	2.0	3.0	9.1	3.0	1.0	0.2
부산	15	2.3	7.1	1.0		5.0	7.1		2.0
계	104	15.5	165.2	24.6	41.6	61.9	1.8	12.7	1.0
종교									
카톨릭, 기독교	39	5.8	81.2	12.7	2.6	23.3	5.0	2.0	3.0
불, 유교	48	7.2	46.6	9.1	2.1	16.2	3.0	3.0	3.0
무교	27	4.1	35.5	5.3	1.0	1.5	2.1	3.2	3.0
계	104	15.5	162.2	24.4	41.6	62.0	9.0	8.2	7.1
학력									
국졸	25	3.9	33.5	1.4	2.2	7.1	1.1	1.0	
중졸	24	3.7	31.4	4.8	9.1	13.0	2.0	1.0	0.2
고졸	38	5.0	70.1	10.8	13.0	2.0	24.3	5.0	8.1
대졸이상	9	1.4	23.3	3.5	3.0	5.0	12.1	1.9	
무학	6	0.9	5.0	0.8	1.0	2.0	0.3		0.2
계	102	15.2	162.2	24.9	40.6	58.8	9.7	1.1	7.1

(표 9) 유급본인 본인 급여음식의 업종, 거주지역, 종교, 학력별 비율 분포

구분	연령	업종		거주지역		종교		학력	
		제조업	서비스업	도시	농촌	불교	기타	초·중·고	대·석·박
연령									
18~29세	17	2.9	60.1	3.0	6.0	11.1	1.9		
30~39세	23	4.0	81.1	13.9	3.0	5.0	16.2	8.0	1.0
40~49세	13	2.2	60.1	3.0	5.0	12.1	6.0	1.0	3.0
50~59세	9	1.6	19.3	3.0	2.0	4.0	0.7	3.0	0.5
60세이상	6	1.0	9.1	1.6		1.0	2.0	1.0	0.2
계	68	11.7	228.3	39.4	10.7	38.6	5.3	5.3	6.0
거주지역									
서울, 경기	10	1.7	26.4	4.8		2.0	4.0	0.7	1.0
안양, 수원, 인천	4	0.7	20.3	3.5		1.0		1.0	
충청도	10	1.7	29.4	5.0	1.0	2.0	6.0	1.0	0.7
경상도	22	3.8	28.4	4.8	1.0	11.9	4.0	0.7	1.0
전라도	11	1.9	70.1	12.1	1.0	14.2	11.6		1.0
제주도	6	1.0	18.3	3.1		3.0	5.0	0.7	
강원도	3	0.5	17.2	2.9	6.0	1.0	3.0	0.5	
부산	2	0.4	18.3	3.1		4.0	0.7		
계	68	11.7	228.3	39.4	10.7	38.6	5.3	5.3	6.0
종교									
기독교, 카톨릭	28	5.0	94.1	16.4	7.1	12.1	12.1	2.0	3.0
불, 유교	21	3.7	85.1	11.3	1.0	14.2	2.9	7.1	2.0
무교	17	3.0	68.1	11.8	1.0	6.0	12.7	1.0	2.0
계	67	11.7	227.3	39.5	9.1	38.6	6.3	5.4	6.0
학력									
국졸	10	1.8	27.4	4.8	2.0	5.0	0.9	4.0	0.7
중졸	9	1.6	40.7	7.2	2.0	9.1	1.6	7.1	1.0
고졸	33	5.9	107.1	19.1	4.0	20.3	16.2	2.5	2.0
대졸이상	13	12.3	44.7	7.9	1.0	2.0	4.0	5.0	
무학	1	0.2	2.0	0.4					1.0
계	66	11.8	220.3	39.4	9.1	36.6	4.0	30.5	6.1

(표 18) 신부요리 질투단 결과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 분포

연령	신부요리 질투단 결과의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정도별 비율 분포										계								
	관동	충청	호남	영남	전라	제주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							
15~23세	6 1.0	11 1.8	3 0.5	16 2.6	11 1.8	6 1.0	28 4.5	17 2.7	2 0.3	5 0.8	8 1.3	5 0.8	1 0.2	122 19.7					
24~32세	17 2.7	12 1.9	3 0.5	18 2.9	19 3.1	6 1.0	32 5.2	27 4.4	10 1.6	1 0.2	12 1.9	5 0.8	1 0.2	2 0.3	182 29.3				
33~41세	15 2.4	8 1.3	9 1.5	19 3.1	15 2.4	9 1.5	18 2.9	22 3.5	4 0.6	17 2.7	1 0.2	2 0.3	2 0.3	173 27.9					
42~50세	4 0.6	7 1.1	1 0.2	10 1.6	9 1.5	2 0.3	11 1.8	13 2.1	7 1.1	1 0.2	1 0.2	4 0.6	1 0.2	5 0.8	51 8.5				
51~59세	6 1.0	5 0.8	1 0.2	2 0.3	8 1.3	1 0.2	2 0.3	3 0.5	4 0.6	3 0.5	1 0.2	7 1.1	2 0.3	1 0.2	93 14.7				
60세이상	48 7.7	43 6.9	17 2.7	65 10.5	62 9.9	24 3.9	91 14.7	82 13.2	6 1.0	43 6.9	3 0.5	5 0.8	3 0.5	19 3.1	6 1.0	4 0.6	5 0.8	3 0.5	621 100.0
총계	202	182	115	39	28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성별	102	92	58	35	25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거주지역	102	92	58	35	25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종교	102	92	58	35	25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교육정도	102	92	58	35	25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총계	202	182	115	39	28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130	117	48	168

〈표 19〉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별 비긍정적인 반응의 비율 분포

구분	반응수	비율	
연령			
18~29세	74	21.7	$\chi^2=32.2$ $df=4$ $p<0.005$
30~39세	79	23.2	
40~49세	96	28.2	
50~59세	58	17.0	
60세이상	34	10.0	
계	341	100.0	
자녀수			
1명	59	17.9	$\chi^2=25.8$ $df=3$ $p<0.005$
2명	100	30.4	
3명	60	18.2	
4명이상	110	33.4	
계	329	100.0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출처 1 (취미(의사·간호원), 태과사전·육아전서, 매스컴, 의심·출산에 관한 전문서적, 특별히 얻은 것이 없다)			
13	3.8	$\chi^2=p88.2$ $df=4$ $p<0.005$	
45	13.3		
26	7.7		
67	20.4		
187	55.3		
계	338	100.0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출처 2 (취미어머니, 시어머니, 친구, 이웃·친지)			
98	46.0	$\chi^2=133.1$ $df=3$ $p<0.005$	
28	13.1		
18	8.5		
133	62.4		
계	213	100.0	
학력			
국졸	94	28.7	$\chi^2=153.4$ $df=5$ $p<0.005$
중졸	70	21.3	
고졸	111	33.8	
대졸이상	24	7.3	
무학	29	8.8	
계	328	100.0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 입수 만족도			
만족한다	95	27.9	$\chi^2=52.2$ $df=2$ $p<0.005$
그저그렇다	175	51.3	
부족하다	71	20.8	
계	341	100.0	
임신에 대한 관념 (신이 허락해야 하며 신의 선물이다, 자생함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자연의 생기니 잘 갖는다, 부부의 계획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능하다)			
118	34.6	$\chi^2=28.7$ $df=3$ $p<0.005$	
74	21.7		
52	15.2		
97	28.4		
계	341	100.0	

산후 조리를 잘못된 결과와 연령, 현 거주 지역, 종교, 교육 정도 별 분포를 보니 모두에서 각 군 간에 별 차이 없이 부위가 어디든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결과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일반적 사항과 비긍정적인 반응과의 관계

표 19와 같이 산후 금할·권장할 음식과 행동, 유즙 분비 증감 음식, 행동 및 방법, 산후 관리 지식까지의 질문 내용에서 '잘 모르겠다'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로 응답한 수를 비긍정적인 반응수라 하여 연령, 자녀수, 교육 정도, 정보 입수 출처 1·2, 학력, 정보 입수 만족도, 임신에 대한 관념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보니 표 18과 같이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39세 군에서 자녀수 4명 이상에서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특별히 얻은 것이 없는 경우에, 이웃·친지로 부터 정보를 얻고 학력이 낮은 군에서, 정보 입수에 대한 만족도가 그저 그런 경우에서, 임신에 대한 관념이 신이 허락하고 신의 선물로 보는 군에서 비긍정적인 반응 비율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및 제언

1986. 7.1~8 일 사이에 서울·경기·안양·수원·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대구·부산·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면담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산후관리의 자가간호 중 산후원해야할 음식과 행동 및 그 이유, 금해야할 음식과 행동 및 그 이유, 유즙증감 음식 및 방법 및 그 이유, 샤워 및 통목욕시기 및 이유, 생활시작 시기·정상활동시작 시기 및 그이유, 산후조리 기간 및 산후조리 잘못된 결과에 대한 관념을 알아보아 우리나라 현문화내에 양상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문화에 알맞는 간호중재 고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1. 일반적 사항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8세에서 91세까지 이며 30~39세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거주지역은 11지역중 전라도, 경상도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출처는 특별히 얻은것이 없다와 친정어머니로 부터 얻는다에, 이들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후조리시 도와준 사람으로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순으로 나타났다.

2. 산후 금해야 할 음식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딱딱한음식, 찬음식 이외 27가지가 제시 되었고 17가지 이유중 주요 이유로는 모유·치아·산모소화에의 영향을 들고있다.

3. 산후 금해야할 행동은 과다활동, 무거운 것들기, 찬바람 쐬기, 찬물에 손 넣고 찬곳에 몸대기, 조기 성

생활 이외 15가지가 제시되었고 17가지 이유중 주요 이유는 산모 건강에 안좋고 허약해 있으며 밀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4. 산후 권장해야할 음식은 미역국, 곰국 육류이외에 22가지가, 이유 14가지중 주요이유는 산모의 건강회복촉진, 영양공급, 모유증진 및 질(質) 향상, 산모의 나쁜 피 제거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5. 산후 권장해야할 행동은 적당한 집안일과 운동, 약간의 운동 또는 일, 충분한 휴식, 산후체조 및 몸을 따뜻하게 하기를 포함하여 21가지가 제시되었고 11가지 이유중 주요이유는 산모몸의 빠른 회복, 임신전 상태유지, 산모의 건강도모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6. 회음간호 양상은 청결히 하기, 썩점, 소독약 풀어쓰기 이외 21가지가 제시 되었을때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청결히 하는지 자주 얼마나 닦는지 등 상세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유즙분비율 증가시키는 음식은 쇠고기 미역국 이외 28가지가 제시되었고 대부분 액체 및 수분함량이 많은 음식이다.

8. 유즙분비 감소음식은 엇기름, 향생채, 마이신 등 양약, 인삼, 단음식 이외 13가지가 제시되었다.

9. 산후 젖 끊은 방법은 차츰 수유 뺏수 줄이고 이유식 하기, 유두에 쓴약 바르기, 유방 출라 매기 이외 19가지가 제시 되었다.

10. 산후 관리지식에는 샤워, 통목욕, 성생활, 정상활동, 이뺏기 시기와 그 이유를 알아 보았는데 샤워 시기는 1일~100일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제 7일째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그 주요 이유는 청결하여야 되고 움직임이 가능한 때이므로를 들고 있다. 통목욕시기는 3일~100일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제 30일째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그 주요 이유로는 그 전에 하면 세균감염이 우려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때이므로를 들고 있고, 성생활시기는 2주~1년까지 분포되어 있고 제 30일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그 주요 이유는 몸이 정상이 되고 상처가 아문때이므로를 들고 있고, 산후 정상활동시기는 20일부터 1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30일, 100일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주요 이유는 어느 정도 몸이 정상이 된 때이므로를 들고 있다. 이뺏기시기는 1일에서 10주로 분포되어 있고 제 7일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그 이유로 잇몸이 들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정된 때인 제 7일에 하여야 한다고 나타났고 산후 조리기간은 30일, 3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1. 산후 조리를 잘못된 결과 나이 들어 몸이 안 좋다. 신경통, 허리가 아프다 이외 30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주요 핵심은 산후 조리를 잘못하면 부위가 어디든 몸이 아프게 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산후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로 이들의 산후관리 개념이나 지식 경험이 산후관리의 주요한 영향 인자이며 제시된 음식이나 행동 방법 및 이유들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순수한 표현이며 그 내용을 보면 잘못알고 있는 점도 있고 특히 그 이유가 확실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게 나타났으며 각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문화에 서구식 문화가 합해진 혼합양상을 보이며 비올로 볼때 순수한 전통적인 방법은 아주 적게 나타나 오늘날의 양상을 확인해 보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연령·거주지역·종교·교육정도 별 분포에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산후관리는 하문화(Subculture)로 보다는 하나의 문화(Culture)로 설명할 수 있겠고 이에 이러한 양상을 이해하고 간호접근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사정하여 해로운 것(Harmful)은 중립적(Neutral)이거나 이로운(Benefit) 쪽으로, 해도 이익도 안되는 중립적(Neutral)인 것은 그대로 또는 이로운 쪽으로, 이로운 것은 재 강화(Reinforcement)시키므로 대상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자가간호와 건강한 산후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끝으로 서구문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순수한 우리 교유의 산후관리 방법 도출을 위한 재연구 및 전래해은 방법의 재 고찰 및 응용 그리고 간호중재로의 확립, 임신·출산·산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있는 간호학적인 면에서 기술된 전문서적의 출판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강신표, (185), 한국문화연구, 서울, 현암사.
2. 김열규, (1977), "한국전통문화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 한국인의 남여역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 민속종합 조사보고서, 대구, 형설출판사.
4. 유안진, (1986), 한국의 전통유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5. 이광규, (1982),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일조각 33~91페이지.

6. 이두현, (1984), 한국민속한본고, 서울, 학연사.
7. 이경용, (1985), "의료사회학: 연구대상과 발전과정", 연세사회학, , 222~237페이지
8. 허준, (1986),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9. Bianca Yit-Ming Tam, (1982), "Ctural influence on birth practice in Hongkong," *The Australasian Nurses Journal*, June, p. 25.
10. G.J. Ebrahim, (1980), "Cross cultural aspects of pregnancy and breastfeeding", *Proc. Nur-Soc.*, 39, 13~15.
11. H. Jean C. Wiese, (1976), "maternal nutrition and traditional food behavior in Haiti", *Human organization*, summer, Vol. 35, No. 2, pp. 193~200.
12. Maria Williams O'Rourke, (1984), "Research on Women and health care: influence sociocultural factos," *Health hctare for women international*, 5, pp. 279~287.
13. Marie Scott Brown, (1976), "A Cross cultural Look at pregnancy, Larbor, and Delivery" *JOGN Nursing*, Sep/Oct, pp. 35~38.
14. Nancy J. Draugsvold, (1979), "Tertiary education in Nursing: A Cultural issue,"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Vol. 8, No, 11, pp. 46~49.
15. Victoria A. Whitehead, (1979), Cultural Diversity Implications for Nursing", *TNA Bulletin* Jan.-Feb. pp. 12~13.
16. Beverly M. Horn, (1981), "Cultural Concepts and Post-partal care." *Nursing & Health care*, Nov., pp. 516~527.

A Study on Comparison of self-care Style among Client's in Nursing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Jung-Ja Chun, Eun-Kwang Yo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elf-care style in postpartal period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in Korea. To put it concretely, the contents of the self care are foods and behaviors to eschew and take in postpartal period: foods and methods to increase and decrease the breastmilk; the knowledge of postpartal care: the time to start shower, tub bath, sexual life and normal activities, and a postpartal care period.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20 randomly from 10 regions in south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thru questionnaire and interview from July 1st. to 30th, 1986.

Data analysis included percentage and χ^2 -test by SA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Foods to eschew after childbirth came out 30 varieties including a hot and salty food, solid food and cold food.
The main causes came out 17 varieties including effects on mother's breastmilk, teeth and indigestion.
2. Behaviors to eschew came out 20 varieties including overactivity, lifting a heavy burden, exposure to cold air, water and place, and early sexual life. The main causes came out 17 varieties including bad effects on mother's health and risk of prolapse of uterus.
3. Foods to take came out 25 varieties including a seaweed soup, thick beef soup and meat. The main causes came out 14 varieties including promotion of mother's recovery, supplying nutrients and promotion of amount and quality of breastmilk.
4. Behaviors to take came out 21 varieties including a adequate housework and exercise, some exercise and work, enough rest postpartal exercise, and letting the body warm. The main causes came out 11 varieties including rapid recovery of mother's body, maintenance of physique before pregnancy.
5. The type of perineal care came out 24 varieties including cleanness, wormwood fomentation and washing with water mixed a disinfectant.
6. Foods to decrease breastmilk came out 17 varieties including malt, foods made from malt (so called sikhyae or Gam-Ju), drugs like antibiotics, ginseng and sweet foods.